

## 한국 경제, 저성장의 늪에 빠질 것인가?

다시금 V자형 반등? vs. 이대로 L자형 고착?



# Contents

## 한국 경제, 저성장의 늪에 빠질 것인가

- I. 한국 경제, 저성장 시대 본격화 조짐
- II. 일본의 장기 저성장 초기 10년과 비교
- III. 한국 저성장 전망의 주요 배경
- IV. 저성장 전화위복은 가능한가



## 한국 경제, 저성장의 늪에 빠질 것인가?



한국 딜로이트 그룹

**정 동 섭**

딜로이트 인사이트 리더

☎ 02-6676-3275

✉ dongjeong@deloitte.com

최근 한국 경제는 세계적인 경제 불확실성과 국내 구조적 한계가 맞물리며 저성장 국면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과거 고도 성장을 견인했던 수출 중심의 제조업 강국이라는 위상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지만,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과 기술 혁신에 적응하는 데는 새로운 도전이 필요합니다.

특히, 인구 고령화, 생산성 정체,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 부족은

한국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핵심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글로벌 무역 긴장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 에너지 전환 등 외부적 변수는

경제 구조의 재편과 정책적 대응을 더욱 절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이 저성장 국면을 타개하려면, 전략 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국가와 기업 차원에서 미래를 내다보는 비전 하에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보고서는 한국 경제의 저성장 전망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며, 기업들이 직면한 주요 도전 과제와 그 배경을 탐구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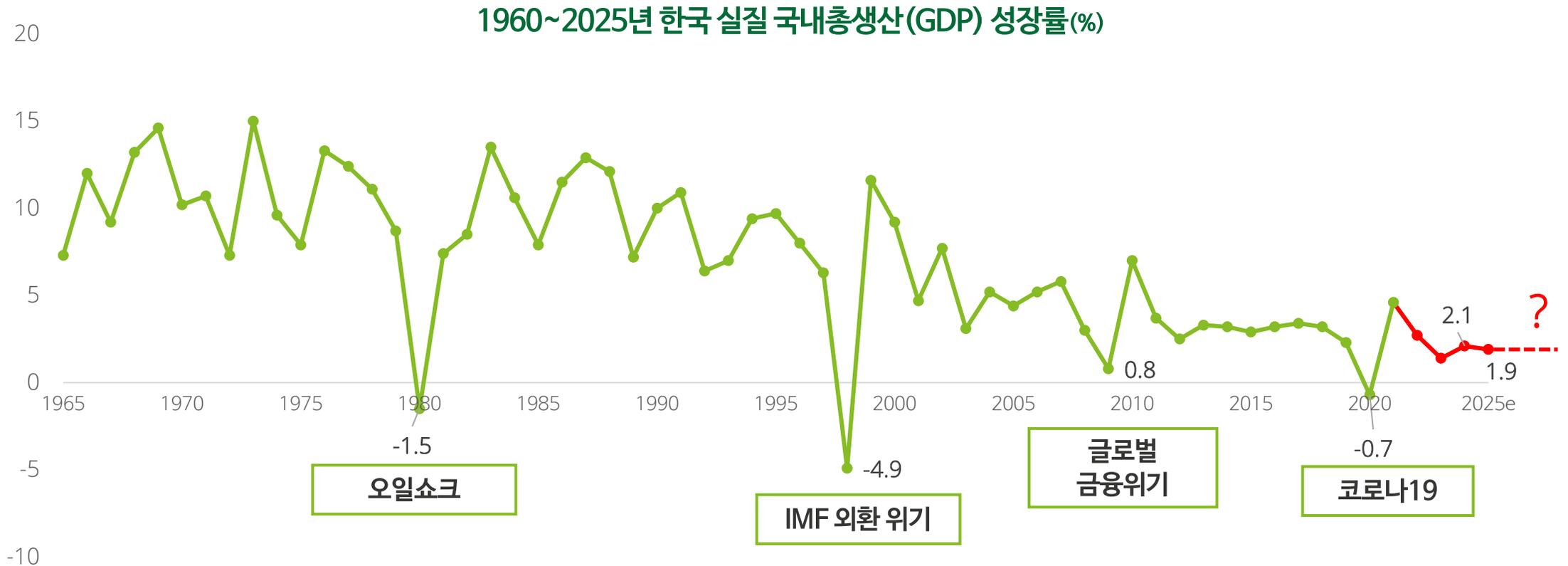
본 보고서가 독자 여러분께 유익한 통찰을 제공하기를 바랍니다.

# 한국경제, 저성장 시대 본격화 조짐 ①: L자형 패턴 뚜렷해지는 경제성장률



지난 60년 간 한국 경제는 IMF 외환위기와 코로나19 같은 위기에 1년 만에 V자형 회복을 이루었으나, 최근 반등폭이 점차 줄어들며 L자형 성장 패턴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 V자형 회복 반복했던 한국 경제성장률, 점차 뚜렷해지는 L자형 성장 패턴으로 변화 ”



참고: 2024~2025년 수치는 한국은행 전망치  
 자료: e-나라지표, 한국은행 경제전망(2024년 11월), Deloitte Insights 재구성

# 한국경제, 저성장 시대 본격화 조짐 ② : 연이어 하향되는 2025년 전망치



세계 12위 경제국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2년 연속 1%대를 기록할 전망으로, 저성장 국면이 본격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외 경제기관과 국제기구들은 2025년 성장률 전망치도 계속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 국내외 기관, 2025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중

### 주요 기관 2025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기관	기존 전망치	전망치 하향
기획재정부	2.2	1.8
한국은행	2.1	1.9
한국개발연구원	2.1	2.0
국제통화기금	2.2	2.0
경제협력개발기구	2.2	2.1
아시아개발은행	2.3	2.0

자료: 기관별 보도자료 취합, Deloitte Insights 재구성

## 2년 연속 1%대 성장, 경제개발 60년 만에 처음

- 선진국\*의 장기 GDP 성장률 평균치가 2%대이므로, 명목 GDP 기준 세계 12위 경제국인 한국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경우 일반적으로 저성장 상태로 평가됨
- 2024년 1%대 성장 시 2023년(1.4%)에 이어 2년 연속 1%대 기록, **경제개발 60년 만에 처음**
- 국제기구들 2025년 전망치, 아직 2%대에 머물러 있지만 **계속 하향 조정 중**
- 대다수 글로벌 주요 투자은행(IB), **2025년 한국 경제 성장률 1%대로 전망**

참고: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은 '선진국'을 1인당 GDP가 3만 달러 이상인 국가로 정의

# 일본의 장기 저성장 초기10년과 비교 ① : 한국과 일본의 저성장 촉발 요인과 초기 대응 비교



한국과 일본의 저성장은 미국발 수출 충격이 시발점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으로 일본은 수출·내수·금융의 3중 위기를 맞았던 반면 한국은 수출 충격 속 내수 전망이 악화되는 가운데 아직까지 금융위기 대응은 선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장기 저성장 초기10년	저성장 장기화 기로에 있는 한국
미국발 수출 충격이 시발점이라는 공통점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역적자가 심화된 미국의 압력으로 1985년 플라자 합의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급격한 엔화 절상</li> <li>➢ 수출 경쟁력 급격히 약화</li> <li>➢ 대미 수출 급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트럼프 정부의 관세 공격으로 2018년 미·중 무역전쟁 본격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 중심 경제구조 타격</li> <li>➢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주요품목 수요 감소</li> <li>➢ 대중 수출 급감</li> </ul> </li> </ul>
금융위기 대응에서 갈리는 경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엔화 절상 충격 완화, 내수 부양 위해 금리인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동산과 주식 시장 거품 발생</li> <li>➢ 급격한 금융 긴축 단행으로 버블 붕괴와 내수 침체 장기화</li> <li>➢ 내수 침체 따라 금융위기까지 수출·내수·금융 3중 위기</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 위기에도 적극적인 대처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바탕으로 금융위기 대응 선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3년 상호신용금고뱅크런, 12월 부동산 PF 대출 등</li> </ul> </li> <li>•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내구재, 준·비내구재 소비 모두 2년째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 충격 속 내수 전망도 부정적이나 금융위기 대응은 선방</li> </ul> </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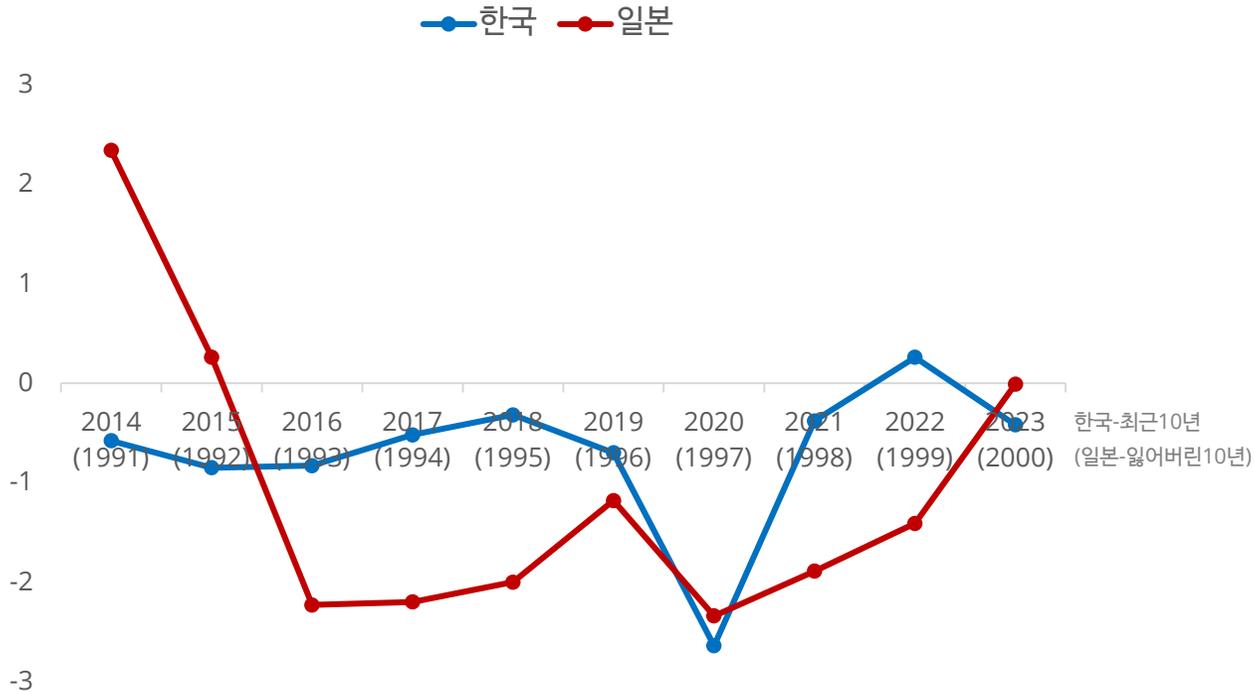
# 일본의 장기 저성장 초기 10년과 비교 ② : 당시 일본 추종하는 한국 GDP갭



일본의 장기 저성장 초기 10년과 한국의 최근 10년간 GDP갭이 모두 우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마이너스 GDP갭이 지속되는 것은 장기적·구조적 경기 침체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 한국의 GDP갭 추이, 일본 저성장 진입 시기와 유사

한국의 최근 10년 Vs. 일본 잃어버린 10년의 GDP갭(%)



자료: 세계은행, Deloitte Insights 재구성

### 일본

- 버블경제 붕괴('91년)와 동시에 장기 저성장 국면에 진입

### 한국

- 2012년 GDP갭이 마이너스로 떨어진 이후 2023년까지 10년 넘게 마이너스 기록
- 코로나19로 막대한 돈을 풀었던 2022년만 플러스 기록
- 2020년 이후 G7 국가 중 GDP 갭이 6년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국가는 프랑스가 유일

#### \* GDP갭

: 국내총생산(GDP)과 잠재GDP 간의 차이. GDP 갭이 마이너스를 지속적으로 기록한다는 점은 생산 설비와, 노동력 등 한 나라가 보유한 생산 요소가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

→ 장기적인 경기 침체 가능성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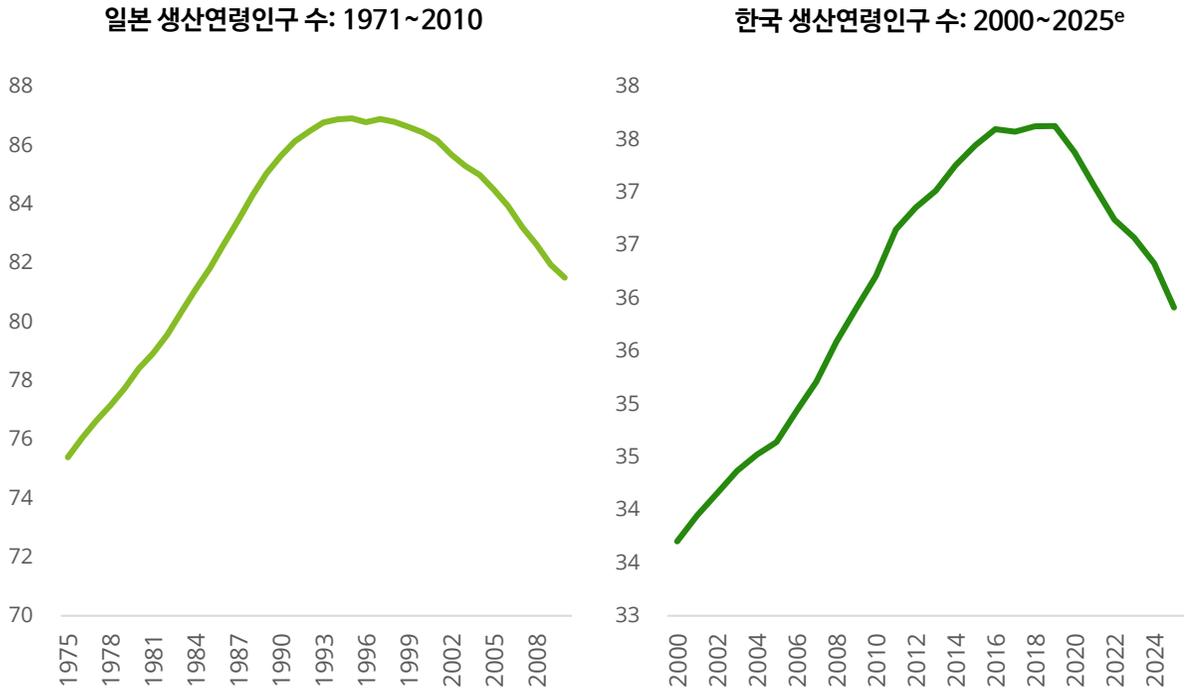
# 일본의 장기 저성장 초기 10년과 비교 ③ : 당시 일본 추종하는 한국 인구 변화



일본은 1995년, 한국은 2022년을 기점으로 생산연령인구가 고점 찍고 하향 중입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자본의 한계생산성을 감소시켜 설비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국 경기가 둔화되고 내수시장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 일본 1995년, 한국 2022년 생산연령인구가 고점 찍고 하방

일본과 한국의 생산연령인구 수 변화 추이(백만명)



자료: 한국 통계청, 일본 총무성 통계국, Deloitte Insights 재구성

**일본**

- 1975~1980년 기간부터 생산연령인구 성장이 1%를 밑돌기 시작했으며, 1995년 이후 마이너스 성장 지속

**한국**

- 빠른 인구 노령화와 생산연령인구의 급감 등 인구 구조 변화는 (잠재)경제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

자본 노동비율 증가 → 자본의 한계생산성 감소  
→ 자본수익률 하락 → 설비투자 감소의 악순환

\* 생산연령인구 :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의 인구로 만 15세부터 64세 인구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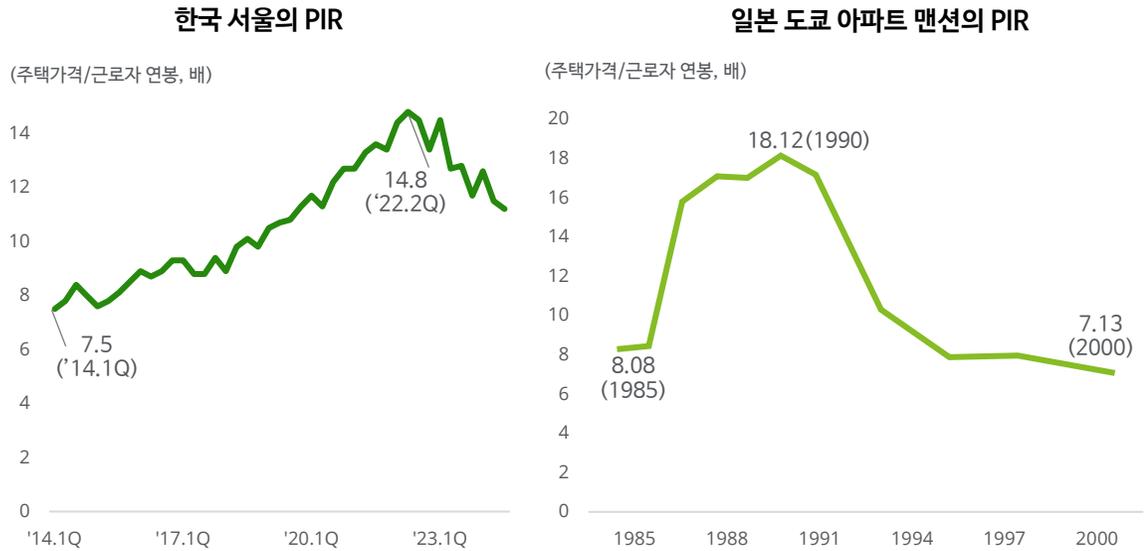
# 일본의 장기 저성장 초기 10년과 비교 ④ : 당시 일본 추종하는 PIR



2023년 1분기 한국 서울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은 14.8로 2014년 1분기 7.5 대비 약 2배 증가해 일본 부동산 버블의 정점기인 1990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 일본 버블 정점기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는 서울의 PIR

### 서울 최근 10년 & 도쿄 장기 저성장 초기 PIR 추이(배)



**일본**

- 1990년 도쿄의 PIR은 18.12로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빠르게 하락해 횡보

**한국**

- 2014년 1분기 서울의 PIR은 7.5였으나 2023년 1분기 14.8로 약 2배 증가

높은 부동산 가격으로 인한 가계의 실질 가용 소득 하락은 결국 내수 소비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

참고: 일본은 70평방미터 기준으로 환산한 신축 아파트 맨션 가격의 평균 연봉 배율 기준임  
 국내 PIR은 가구소득의 경우 분기단위 서울의 KB국민은행 부동산담보대출(아파트) 대출자의 연소득 중위값이며 주택가격은 분기단위 서울 내 KB국민은행 부동산담보대출(아파트) 실행시 조사된 담보평가 가격의 중위값  
 자료: KB 부동산, 일본 도쿄 칸테이, Deloitte Insights 재구성

\* PIR(Price to Income Ratio)  
 : 연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로 집값의 버블을 측정하는 추산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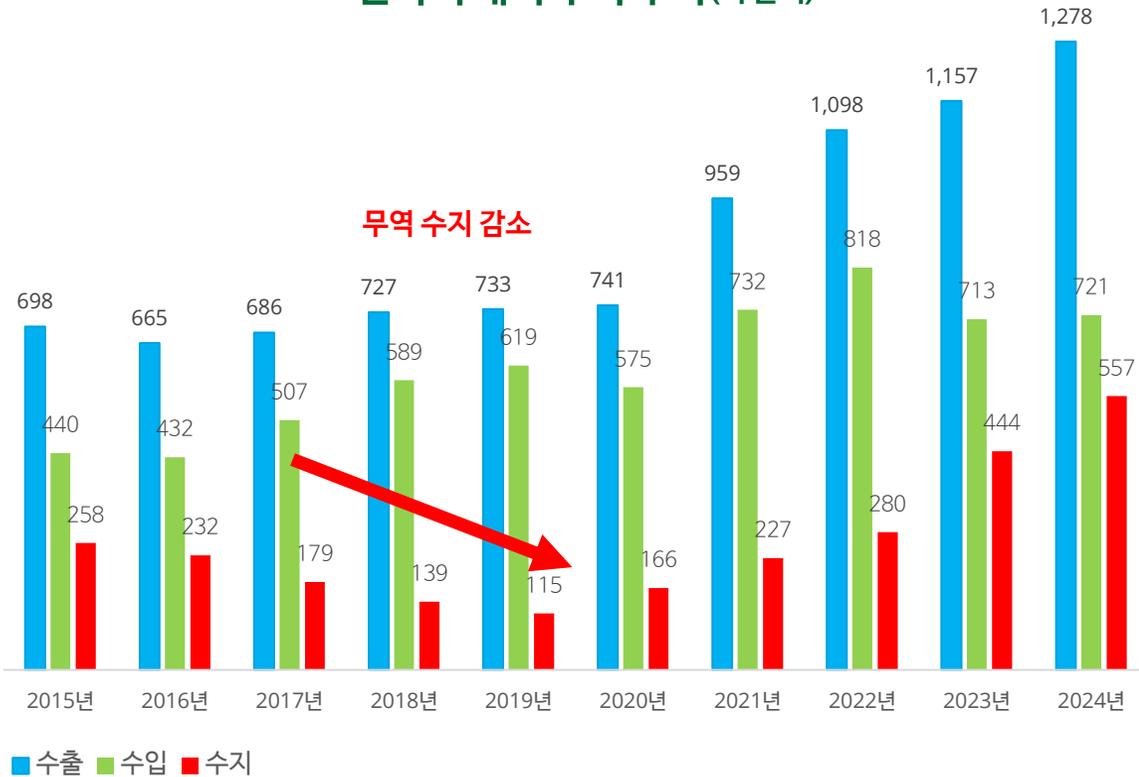
# 한국 저성장 전망의 주요 배경 ① :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따른 글로벌 통상구조 재편



트럼프 2기 정부가 상호무역법 제정, 보편관세(10~20%), 대중 관세(최대 60%)를 이행하거나 무역협상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트럼프 1기 당시와 같이 한국의 대미 무역 수지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트럼프 1기(2017~2021), 대미 무역수지 감소

한국의 대미 무역 추이(억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Deloitte Insights 재구성

## 트럼프 2기 통상구조 재편에 따른 영향

- 미국발 관세 경쟁의 글로벌 확산
  - 심각한 무역 비효율성 촉발
  - 관세 공격과 보복 관세 되풀이
  - 세계경제 침체 가능성
  - 한국 경제에도 악영향
    - ※ IMF, 트럼프 2기 강도 높은 보호무역정책 실현 시 2025년, 2026년 세계 GDP 0.8% 및 1.3% 각각 감소 전망 (세계은행, 2023년 말 기준 세계 GDP 규모 105조 달러로 집계)
- 대미 수출품의 세전가격 인하 불가피
  - 수출 기업들의 마진 압박 증대
  - 한미 교역 위축, 특히 IRA 영향 받는 2차전자·자동차 산업 타격 불가피
  - 경제성장에 수출 기여도 하락
  - 고용 감소
    - ※ KIEP, 트럼프 관세정책 여파로 韓 수출 최대 448억 달러 감소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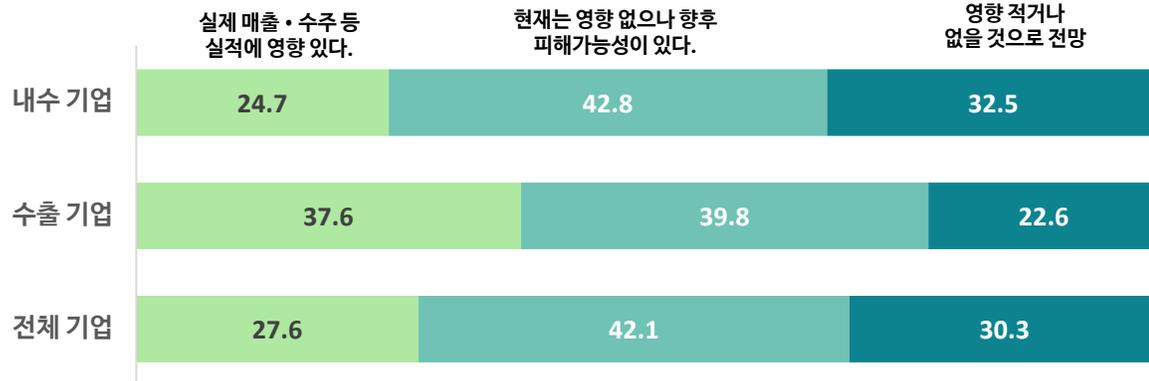
# 한국 저성장 전망의 주요 배경 ② : 中 제조업 경쟁력 강화로 韓 기업 경쟁력 타격



중국은 강력한 산업지원 정책과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 및 대규모 생산 체계를 기반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였고, 국내 제조 기업들은 중국의 공세에 심각한 타격을 받아 왔습니다.

## 중국 제조업 경쟁력 강화로 국내 제조업체 약 70%가 '피해 영향권'

중국 제조업 경쟁력 강화시 국내 제조기업 영향도 조사(%)



- ▶ 배터리 > 섬유/의류 > 화장품 > 철강 순으로 피해 심각
- ▶ 수출기업으로 분류된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큰 영향

\*참고: 매출액 중 수출 비중이 50%이상이면 수출기업, 미만이면 내수 기업으로 분류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2024), Deloitte Insights 재구성

## 중국 제조업 부문별 경쟁력 현황

<b>배터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 주기 공급망을 수직계열화하며 단기간에 시장 점유율 확대</li> <li>'23년 배터리 생산량 1.07TWh로 글로벌 수요(0.95TWh) 상회</li> </ul>
<b>전기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4년 1~9월 누적 인도량 기준,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상위 10개 기업 중 5개가 중국 기업</li> <li>중국의 전기차 글로벌 시장점유율 약 42%</li> </ul>
<b>석유화학</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5~'27년 글로벌 에틸렌 증설 규모의 61%를 중국이 차지할 전망<sup>N)</sup></li> <li>'22년 석유화학 생산능력 성장률 8.9%를 기록, 중국 외 아시아(2.1%) 및 북미(3%) 등 주요지역 성장률 상회</li> </ul>
<b>철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규모 과잉 생산으로 한국산 대비 30~40% 낮은 가격</li> <li>'23년 중국이 글로벌 조강 생산량의 54% 차지</li> </ul>
<b>태양광</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글로벌 밸류체인 내 모든 부품의 80% 이상이 중국산</li> <li>'23년 중국 모듈 생산능력(1,012GW)이 글로벌 설치용량(653GW) 상회</li> </ul>

# 한국 저성장 전망의 주요 배경 ③ : 글로벌 투자자들이 외면하는 한국 자본시장(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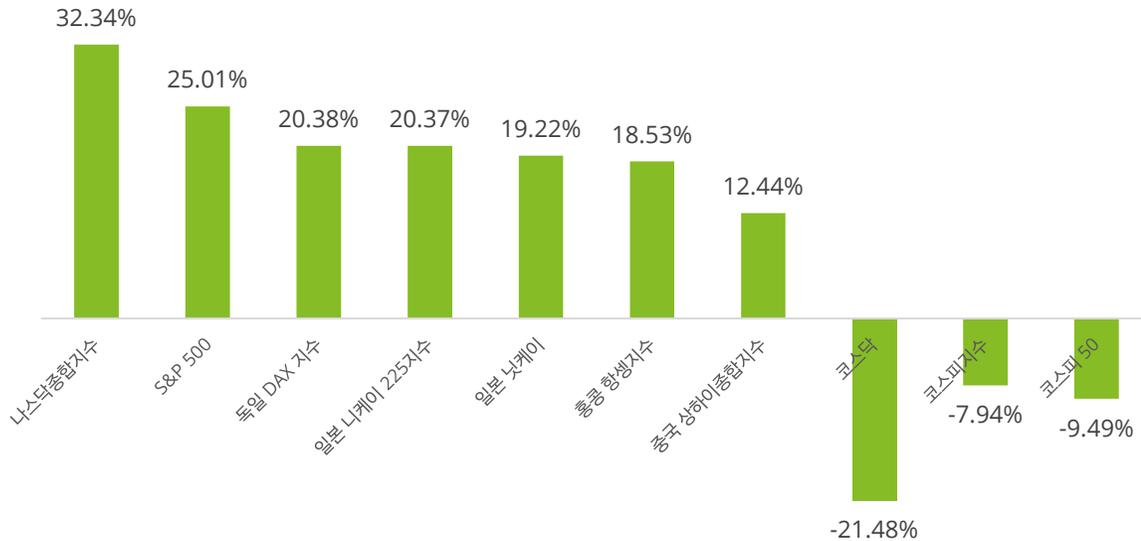


한국 주식시장은 주요국 증시와 디커플링이 유독 심화되며 2024년에만 약 250조 원의 시가총액이 증발했고, 한국 원화는 12개 아시아 주요 통화 중 달러화 대비 가장 높은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 코스닥 지수, 34개국 40개 대표지수 중 꼴찌

## 원화, 아시아 주요 통화 중 달러 대비 가장 가파르게 하락

주요국 주가지수 상승률(%, 2024년 기준)



2024년 12월 미 달러 대비 통화가치 변화(%)



▶ 코스닥, 미국 나스닥 33% 오르는 동안 23% 하락

▶ 2024년 외환시장 마지막 거래일, 원/달러 환율 1,472.5원으로 1997년(1,695원) 이후 27년 만에 최고치

참고: 2025년 1월 2일 검색 기준  
 자료: investing.com, Deloitte Insights 재구성

자료: Bloomberg, Deloitte Insights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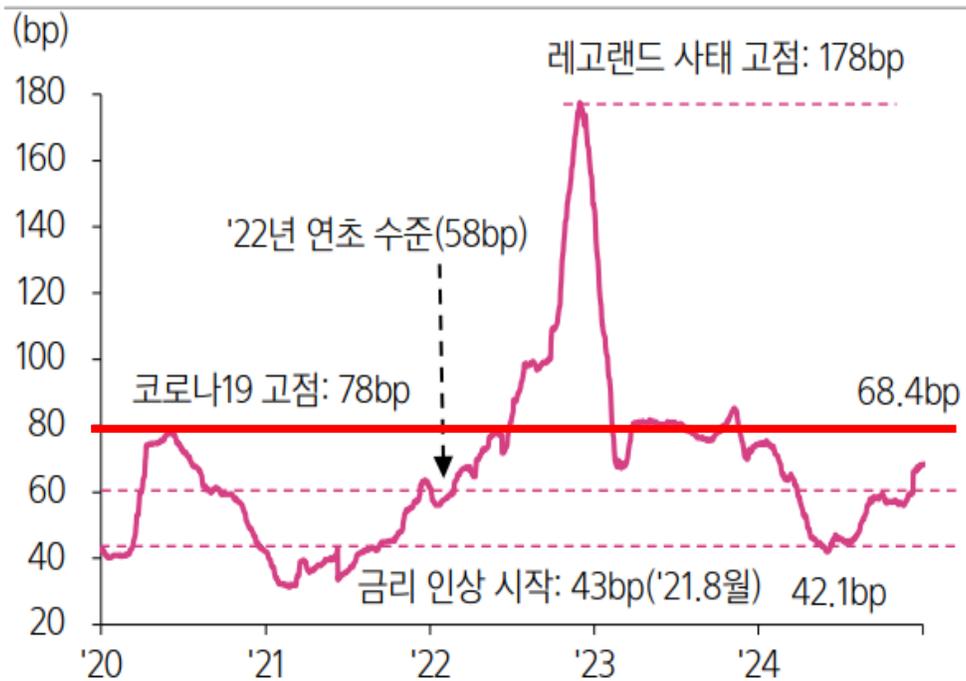
# 한국 저성장 전망의 주요 배경 ③ : 글로벌 투자자들이 외면하는 한국 자본시장(2/2)



한국 자본시장은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지정학적/정치적 불확실성, 산업구조, 기업신용, 자산 수익성 등 다양한 리스크로 인해 글로벌 자본시장 큰 손들의 자본 유입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 2025년 기업 신용 스프레드, 코로나19 당시 수준 근접

2020~2025년 기업 신용 스프레드



참고: 크레딧 스프레드(회사채, AA등급, 3년)  
 자료: 삼성증권, Infomax

## 글로벌 자본시장이 한국을 외면하는 이유

- 지정학적,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 부족
- 기업 신용 스프레드 리스크 심화돼, 국내 기업들의 자본조달 여건이 빠르게 악화
- 한국 특유의 재벌 오너 중심 의사결정 구조는 정치적 이슈 또는 경영 공백 발생 시 기업 전체적인 리스크로 연결
-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 산업과 AI, 로봇틱스 등 신산업이 성장 한계에 봉착해, 다각적 성장 동력 찾기 힘든 산업 구조
- 미국·중국·일본에 비해 자본시장 규모가 작고 유동성 부족. 글로벌 연기금, 헤지펀드, 자산운용사들의 이탈 요인
- 기업들의 자본조달 비용 증대, 투자욕 저하, 수익성 악화돼 국내 주식시장의 매력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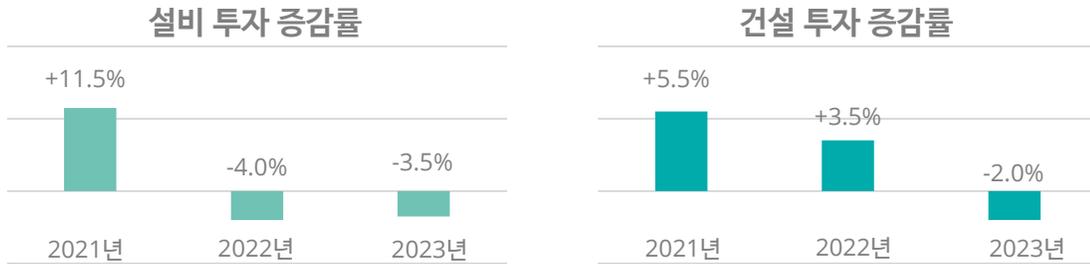
# 한국 저성장 전망의 주요 배경 ④ : 핵심 산업 주요 기업의 국내 투자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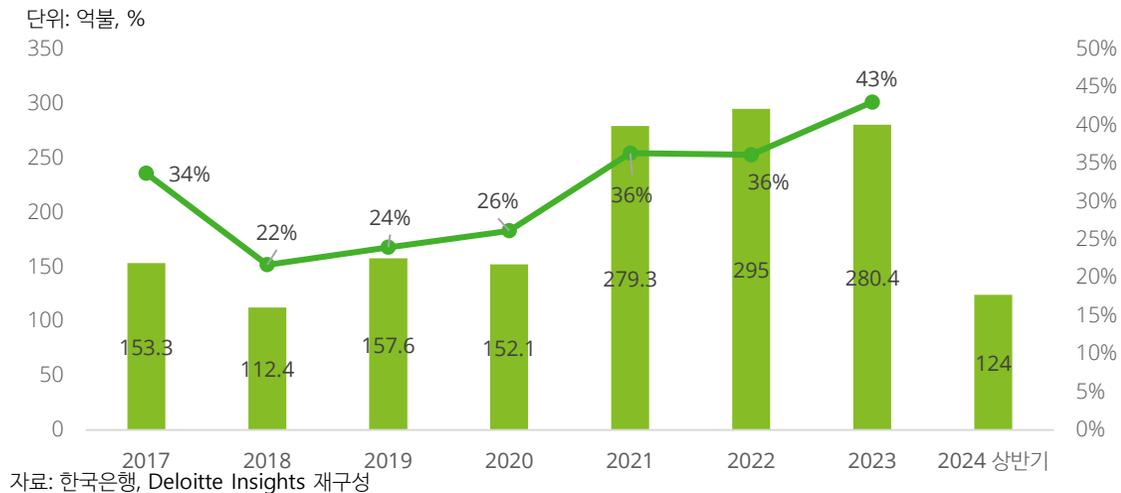
국내 핵심 산업의 주요 기업들이 대미 투자를 확대하는 반면, 국내 투자는 축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국내 주요 기업들, 국내 투자보다 미국 투자 우선시

### 국내 기업의 설비 및 건설 투자 증감률



### 한국의 대미 투자액 및 대미 투자비중 추이



## 美 IRA 시행 이후 대미 투자 증가, 국내 투자 감소 가속화

- 2023년 기준 한국이 해외에 투자한 금액 중 43%가 미국에 집중되며, 사상 최대 대미 해외투자 비율을 기록
  - 과거 트럼프 1기 집권 (2017~2021) 당시 한국의 대미 투자액은 150억 달러 안팎 기록
  - 바이든 행정부 집권 (2021~) 이후 IRA 법안 등의 보조금 혜택에 힘입어 두 배 가까운 상승을 기록
- 한국의 핵심 산업 주요 기업들의 대규모 대미 투자 여파로 양질의 일자리가 미국으로 이전
  - 미국 리쇼어링·FDI로 창출된 일자리 약 18만2,880개 중 한국 기업이 17%로 가장 많이 기여
  - 반면 2023년 국내 제조업 취업자는 2022년 대비 4만3,000명 감소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해외 생산품에 대한 고율관세 정책으로 미국 내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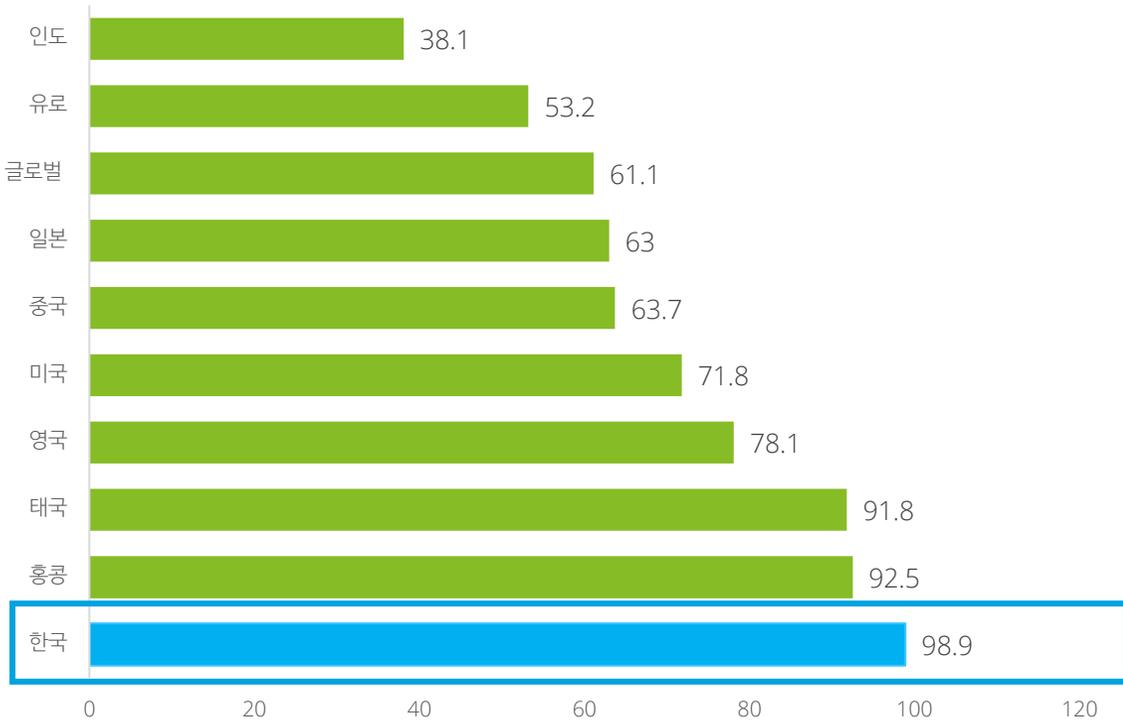
# 한국 저성장 전망의 주요 배경 ⑤ : 가계부채 부담으로 한계에 봉착한 내수 시장



한국은 GDP 대비 가계부채가 주요국 대비 높으며, 지속적인 소비 위축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서비스업 성장 부진 등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한국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 주요국 상회

상위 10개국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 , 2024년 1분기 기준)



자료: 국제금융협회 부채보고서(2024), Deloitte Insights 재구성

## 소비 발목 잡는 가계부채 부담

- 국제금융협회(II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GDP 대비 98.9%로 선진국 평균(약 70%)보다 29%p 더 높은 것으로 파악
- 최근 5년간 연평균 가계부채 증가율은 1.5%로 선진국 중 홍콩(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가계부채가 보합 또는 완만하게 감소한 반면, 한국, 중국, 태국, 홍콩의 가계부채는 대폭 증가
- 지속적 주택가격 상승을 대출에 의존하는 구조로 가계의 금리부담 크게 증가
  - 주택담보대출이 전체 가계대출의 약 60% 차지

# 한국 저성장 전망의 주요 배경 ⑥ : 정치 불확실성 증대로 국내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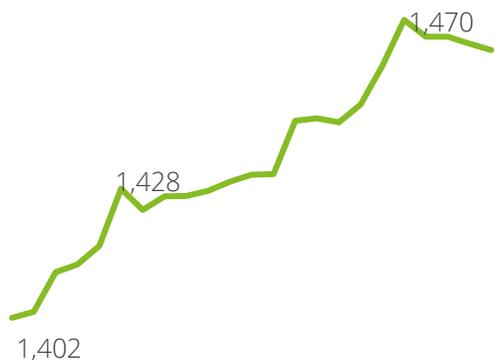
비상계엄 선포(12.3일)이후 정치 불확실성의 증대로 환율과 주가의 변동성이 증가했으며, 과거 탄핵 때와 다르게 글로벌 경제 여건으로 인한 경제 하방 위험 증가와 더불어 고환율 장기화로 인한 소비 심리 악화에 따른 실물 경제 위협이 예상됩니다.

##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제 상황

비상계엄 선포 (2024.12.3)

### 환율 변동성 확대

비상 계엄 선포 이후 원달러 환율 변동 추이  
(2024.12.03~2025.01.06, 일별)



12/3  
비상계엄  
선포

### 소비자심리지수 4년 9개월만에 최대폭 하락

소비자심리지수 변동 추이  
(2024.4~2024.12)



## 대내외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한국 경제 위협 증폭

### 한국경제 하방 위험 증가

- 과거 두 차례 탄핵 국면이 경제 전체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  
- 중국의 고성장(2004년), 반도체 경기 호조(2016년) 등 우호적인 대외여건이 성장세 뒷받침
- 2025년 중국의 경기 둔화 전망 및 미국의 무역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한 하방 위험 증가가 정치적 불안정성의 경제 영향 극대화

### 고환율 장기화 및 소비 심리 악화

- 미국발 강달러 압력이 지속 증가하는 등 고환율 장기화 전망
- 악화된 소비 심리에 불확실성 증가로 실물경제 위축 조짐 및 내수 기업 실적 저하 예상

# 저성장의 전화위복은 가능한가

저성장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산업에 포커스를 맞춘 수출 부진 만회, 장기적인 산업 전략과 기술 혁신을 위한 재정 지원 등 국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업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급망 다각화와 시장 확장 노력, 기술 도입을 통한 차별화와 전문성 확보에 집중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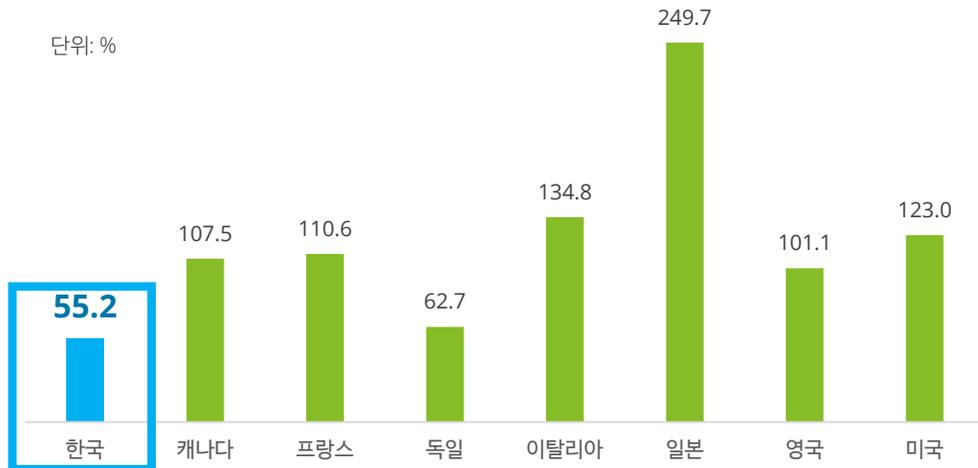
## 산업 전략과 기술 혁신을 위한 재정 지원

한국의 정부부채 비율을 주요국과 비교 시, 국채 발행 여력 존재

→ 장기적인 산업 전략과 기술 혁신을 위한 재정 지원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 확보 필요

2023년 기준 주요국 정부부채 비율(%)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약 55% 수준으로, G7 평균 127% 대비 낮은 수준



자료: IMF, Deloitte Insights 재구성

© 2025.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 Deloitte Consulting LLC

## 기업 경쟁력 확보

### 공급망 다각화와 시장 확장 노력

-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장기적인 성장 전략과 리스크 관리를 위한 체계적 접근 필요
- 공급망 다각화와 시장 확장 노력에 지정학적 요소를 고려하여 신중한 관리 필요

### 디지털 기술을 통한 운영 · 마케팅 차별화

- 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운영 효율성 제고
- 고객 맞춤형 마케팅을 통한 고객 경험 개선

### 인재 확보 및 직원 교육

- 인재 확보 및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
- 기업 내부 경쟁력 제고 및 급변하는 시장 대응 가능한 조직 문화 형성

## 전 세계 경제·산업·경영 트렌드와 인사이트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세요!

-  MZ세대 소비자, ESG, 경제전망 등 **이슈 분석 리포트**
-  CEO·CFO 분기 서베이, 자동차구매의향지수 등 **경영·산업 동향 지표**
-  딜로이트 전문가의 생생한 경험이 녹아있는 **영상 콘텐츠**
-  채용공고, 임직원 브이로그, 이벤트 안내 등 **다양한 딜로이트 소식**

 카카오톡 채널

 앱



Download on the  
App Store

GET IT ON  
Google Play



# 한국 딜로이트 그룹 Industry 리더



한국 딜로이트 그룹 전문가들은 산업 전문성을 바탕으로 혁신과 통찰력을 결합하여 고객의 가장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선도적인 비즈니스 지식과 산업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고객 비즈니스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 손재호 대표

성장전략부문(Growth) 리더

Tel : 02 6676 2502 |

E-mail : jaehoson@deloitte.com



## 최호계 파트너

첨단기술, 미디어 및 통신 산업 리더

Tel : 02 6676 3227

E-mail : hogchoi@deloitte.com



## 김태환 파트너

소비자 산업 리더

Tel : 02 6676 3756

E-mail : taehwankim@deloitte.com



## 한동현 파트너

에너지 산업 리더

Tel : 02 6676 3015

E-mail : donghyuhan@deloitte.com



## 장형수 파트너

금융 산업 리더

Tel : 02 6676 1168

E-mail : hyuchang@deloitte.com



## 이해섭 파트너

생명과학 및 헬스케어 산업 리더

Tel : 02 6676 2411 |

E-mail : harlee@deloitte.com



## 이재호 파트너

정부 및 공공기관 리더

Tel : 02 6676 2919 |

E-mail : jaeholee1@deloitte.com

# References

- 1) e-나라지표, 지표누리 경제성장률. [online] Available at: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01>.
- 2)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024년 11월).
- 3) World Bank Group, Data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 GDP Output Gaps (<https://databank.worldbank.org/id/d6b204dd>).
- 4) 통계청, KOSIS 통계놀이터. '경제활동인구조사'. (<https://kosis.kr/index/index.do>).
- 5) Statistics Bureau of Japan, Population Census-Working age Population. (<https://www.stat.go.jp/english/data/kokusei/>).
- 6) KB부동산 데이터허브, 소득 대비 주택가격(PIR), (<https://data.kbland.kr/kbstats/pir>).
- 7) Tokyo Kantei, Real Estate Market Report. (<https://www.rethinktokyo.com/tokyo-kantei-market-report>).
- 8) 한국무역협회 K-stat, 해외무역통계(미국). (<https://stat.kita.net/stat/istat/uts/UsWholeList.screen>).
- 9) 대한상공회의소, '중국産 저가 공세가 국내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2024.08).
- 10) Investing.com. Major World Market Indices – Performance. (2024.12). [online] Available at: <https://www.investing.com/indices/major-indices>.
- 11) Bloomberg, Markets-Cross Rate (2025). [online] Available at: <https://www.bloomberg.com/markets/currencies/cross-rates>.
- 12) 삼성증권, '2025년 1월 크레딧 채권 투자 전략: 연초효과, 기대감에는 변화가 없다'. (2025.01)
- 13) e-나라지표, 지표누리 한국은행, 국민소득. 통계청, 산업활동 동향. [online] Available at: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IPageDetail.do?idx\\_cd=1055](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IPageDetail.do?idx_cd=1055).
- 14) 국제금융협회(IIF), 세계 부채보고서 (Global Debt Report). (2024).
- 15) 한국은행, '2024년 12월 이후 국제금융, 외환시장 동향' (2025.01). [online] Available at:
- 16) 한국은행, '금융, 경제 스냅샷'. 실물경제 > 경제심리. (2025). [online] Available at: <https://snapshot.bok.or.kr/dashboard/C8/>.
- 17)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Central Government Debt – Percent of GDP'. (2024). [online] Available at: [https://www.imf.org/external/datamapper/CG\\_DEBT\\_GDP@GDD/](https://www.imf.org/external/datamapper/CG_DEBT_GDP@GDD/).
- 18) 中 석유화학 공장, 내년도 더 늘어난다” ...'사면초가' K-석유화학, 한국경제. (2024.11)



앱스토어, 구글플레이/카카오톡에서 '딜로이트 인사이트' 를 검색해보세요.  
더욱 다양한 소식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 Deloitte.

## Insights

<b>성장전략부문 대표</b> 손재호 Partner <a href="mailto:jaehoson@deloitte.com">jaehoson@deloitte.com</a>	<b>딜로이트 인사이트 리더</b> 정동섭 Partner <a href="mailto:dongjeong@deloitte.com">dongjeong@deloitte.com</a>	<b>딜로이트 인사이트 편집장</b> 박경은 Director <a href="mailto:kyungepark@deloitte.com">kyungepark@deloitte.com</a>	<b>연구원</b> 김혜련 Senior Manager <a href="mailto:hyerykim@deloitte.com">hyerykim@deloitte.com</a>	<b>연구원</b> 김선미 Senior Manager <a href="mailto:seonmikim@deloitte.com">seonmikim@deloitte.com</a>	<b>연구원</b> 신인식 Manager <a href="mailto:insshin@deloitte.com">insshin@deloitte.com</a>	<b>Contact us</b> <a href="mailto:krinsightsend@deloitte.com">krinsightsend@deloitte.com</a>
---	--	--	--	--	---	---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http://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본 보고서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저작권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저작권자")에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비영리 목적으로만 이용이 가능하고,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상업적 활용 기타 영리목적 이용시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 보고서의 이용시, 출처를 저작권자로 명시해야 하고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없이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